



보도시점 2026. 6. 29.(월) 15:00 배포 2026. 6. 29.(월) 14:00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대상 방문연수 실시

- 한-중앙아시아 9월 정상회의 앞두고 카자흐스탄과 데이터·통계 협력 강화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29일(월)부터 7월 2일(목)까지 정부대전 청사에서 카자흐스탄 통계청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진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카자흐스탄의 통계 현대화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데이터·통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오는 9월16일~17일 한국에서 개최(26.2.12., 외교부 보도)

연수단에는 굴미라 카라우로바(Gulmira Karaulova) 카자흐스탄 통계청 부청장과 마힌탄 조셉 마리아싱함(Mahinthan Joseph Mariasingham) 아시아 개발은행 수석통계학자, 카자흐스탄 통계청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소개 △빅데이터 활용 통계 생산 사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통계등록부 구축 경험 △인공지능(AI) 활용 통계 혁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조사센터,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반 조사체계와 지역 통계행정 운영 현황, 통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공유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석한 마힌탄 조셉 마리아싱함 아시아개발은행 수석통계학자는 “한국은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한 혁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모범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굴미라 카라우로바 카자흐스탄 통계청 부청장은 “한국의 행정자료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 통계 생산 경험은 카자흐스탄의 통계 현대화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연수가 양 기관 간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업무협약(MOU)을 통해 데이터·통계 분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아시아개발은행과 각국 통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과 통계 현대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데이터·통계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가데이터처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중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윤영 (042-481-2095)
		담당자	사무관	정영심 (042-481-2098)





▶ 카자흐스탄 통계청 부청장과 기념 촬영하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 카자흐스탄 통계청 대표단과 아시아개발은행 참가자와 기념 촬영
(오른쪽에서 4번째 안형준 처장, 5번째 카자흐스탄 통계청 부청장)